바지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16년 12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02-2670-9509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전화

부평공단	032-525-0497	전남서남	061-462-7177
남동공단	070-4756-0119	대구 성서공단	053-585-6200
경기	031-251-7095	포항	064-278-1339
안산/시흥	031-491-7097	녹산공단	051-941-8211
서울	02-2636-2148	창원공단	0899-2090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	02-867-2260	부산/양산	051-637-7433
의정부/양주/파주	031-866-8489	정관공단(동부산)	051-727-8977
광주	062-453-4012	대전충북	043-236-5077

2-3면 지역상담사례 / 공단 노동자는 이것이 궁금하다

4-5면 카드뉴스 / 박근혜 퇴진, 다른 세상 만들기

6면 이주노동칼럼 / 말레베어노동자들, 파독간호사들과 손을 맞잡다

7면 노동안전칼럼 / 화학물질 누출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일하고 사는 법

8면 비정규직노동자 시국대회

최저임금 '1만원' 너머 '제도개선'으로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살면서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는 아파트에 가게 전단지 돌리기… 아침 해가 뜨기 전 깜깜한 하늘을 바라보며 버스를 탔다가 어두운 밤 집으로 귀가하며 손에 쥔 일당 5만원 남짓. 액수를 떠나 땀과 노력의 결과였다." 블로그 〈열정 페이 노동자〉가운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 354시간 더 일하는 한국 노동자. OECD 35개 가입국가 중 최하위 최저임금을 자랑하는 한국.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인 한국.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을 핑계로 저임금으로 내몰리고 공단에서 일하는 500만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7년의 최저임금은 6,470원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51,760원(8시간 기준), 월급 1,352,230원(주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소정근로 월 209시간)이다.

'일한만큼 제대로 대접받고 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최저임금을 결정되는 시기마다 무시됐다.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동결에 가까운 소폭 인상 주장과, 정부 측 입장만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항의하며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들 없이 졸속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지난 7월9일의 일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라

노동자대표조직 민주노총은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7년, '최저임금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6대 요구안도 마련했다.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핵심기준으로 설정 ▲정부 일방 공익위원 추천-위촉 방식 폐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익위원 선정▲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방청 허용 등 투명성 강화 ▲최저임금 적용 위반 징벌 손해배상 등 제재 강화 ▲모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이다. 최저임금은 매해 1월 1일부터,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그대로라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자. 2017년 정유년 닭띠 새해, 노동자들이 수 년 동안 외친 '최저임금 1만원'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당당히 요구하자.

공단 노동자는 이것이 궁금하다

전국 공단과 지역에 노동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상담을 하는 센터(사업단)가 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거리상담, 출장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바지락〉 12월호는 각 지역에서 노동상담을 하고 있는 센터(사업단)의 2016년 지역상담 경향을 아래 네 가지 주제로 담아봤다.

1) 지역(공단)의 특징
2) 올해의 상담주제 '베스트'
3) 올해 상담의 특징
4) 정기 거리상담 안내

노동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바지락〉 1면 왼쪽 위에 있는 각 지역 '노동권리 찾기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남부지역 〈노동자의 미래〉

1) 서울남부지역은 대규모 생산 공장이 거의 없다. 매우 다양한 업종이 혼재되어 있다. 주로 전자업종, 봉제업종, 서비스업, 택배, IT벤처기업, 게임개발업체, 콜센터 등 10-20명 단위 소규모 사업장이 들어서 있다. 업종 마다 특징이 강하다.
2) 2016년 연차수당, 퇴직금, 권고사직/해고 관련 상담이 많았다.
3)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상담은 꾸준히 있었다. 최근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상담이 많다.

〈노동자의 미래〉는 정기 거리 상담을 벌인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7시부터 19시30분까지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광장사업으로 오시라.

4) 〈노동자의 미래〉는 정기 거리 상담을 벌인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7시부터 19시30분까지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광장사업으로 오시라.

서울동부지역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1) 성수동은 중소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이다. 제화, 인쇄, 금속 등 영세제조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급증하고 있다.
2) 평균 월100건 정도 상담한다. 80%가 전화 상담이다. 시기별로 약간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체불임금, 퇴직금 등 임금관련 상담이 50% 정도다.
3) 2016년 특히 주휴수당 관련 문의가 많았다. 다음으로 징계, 해고, 전환배치 등 부당 인사노무관리 관련 상담이 많았다. 이 경우 종종 노조에 개별가입 해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노동자도 있다. 산재, 고용보험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경기북부지역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1) 경기북부지역 의정부 용현일반산업단지에 섬유,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자리하고 있다. 파주에 엘지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전기전자 협력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2016년 상담 중 체불임금 상담이 70여건으로 월등히 많았다. 상담과정을 거쳐 임금과 해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노조가입 상담을 거쳐 현재 한 사업장이 교섭 중이다.

2016년 지역별 체불임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상담사례… 지역상담센터가 노동자 고충 해결

노동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바지락〉 1면 왼쪽 위에 있는 각 지역 '노동권리 찾기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2) 2016년 상담 중 체불임금 상담이 70여건으로 월등히 많았다. 상담과정을 거쳐 임금과 해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노조가입 상담을 거쳐 현재 한 사업장이 교섭 중이다.
3) 2016년 체불임금, 퇴직금, 산재, 육아휴직, 주휴수당 등 일반 상담이 많은 특징이 있고 현재 한 제과공장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1) 부평공단은 전기전자업종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이 업종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기전자업종 특성상 여성사업장, 최저임금, 파견근로, 근골격계질환, 장시간노동, 휴업 특성이 있다.
2) 전기전자업종 사업장이 많아 상담 유형은 성희롱, 불법파견, 차별시정, 근골격계질환, 휴업수당 문제가 다수다. 2016년 체불임금, 실업급여, 부당해고 상담 순으로 많았다.
3) 상담 이후 개별 사건을 통한 권리 구제로 제한하지 않으려 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을 묶어서 집단화했다. 가능한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금속노조 이름으로 사업장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 파견노동자 체불임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부산 녹산공단 〈녹산노동자희망찾기〉

1) 부산 녹산공단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가공, 도금, 피혁, 목재, 철강 사업장 등이 분포하고 있다. 사업장 당 평균 50인 이하가 대다수다.
2) 2016년 500여명을 상담했다. 유형별로 보면 임금상담(퇴직금)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고, 실업급여, 산재 · 노동안전 부분에 대한 상담을 주로 했다.
3) 2016년 임금 지급지연,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착오, 일용직 노동자 주휴수당 미지급, 폐업으로 임금미지급 등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많았다. 물량축소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 복직보다 실업급여 상담이 다수였다. 장시간노동으로 몰리는 이주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상담했다.
4) 〈녹산노동자희망찾기〉는 매년 노동실태조사를 하면서 거리 상담을 겸하고 있다. 상반기 2-3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공단 식당 앞에서 진행한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2016년 체불임금 상담이 절반 이상이었다. 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삭감 관련 상담이 골고루 들어온다. 임금체불 상담은 퇴직금, 연차수당, 명휴수당(사용자 귀책 휴업수당) 등이 주 내용이다. 2016년 업체폐업에 의한 임금체불이 늘고 있다.

거제, 통영, 고성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1)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은 조선업 연관 산업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대형조선소, 중형조선소, 소형조선소, 중소형 공단에 10만 여명의 조선업 노동자들이 일하며, 하청노동자(사내외 하청, 비정규 고용조건)가 7~8만 여명이다.
2) 2016년 체불임금 상담이 절반 이상이었다. 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삭감 관련 상담이 골고루 들어온다. 임금체불 상담은 퇴직금, 연차수당, 명휴수당(사용자 귀책 휴업수당) 등이 주 내용이다. 2016년 업체폐업에 의한 임금체불이 늘고 있다.
3) 최근 업체폐업과 구조조정에 따른 임금체불, 고용승계, 근속기간 인정 문제 등의 상담이 거제, 통영, 고성지역 모든 조선소에서 접수되고 있다. 사내하청의 경우 임금삭감 상담이 많다. 기타 상담 건으로 4대 보험 공제 후 신고 하지 않는 횡령 건, 블랙리스트로 인한 이직제한 등 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노동조합과 함께

민주노총

박근혜 퇴진!
다른 세상 만들기

민주노총

젊은이들 사이에
절망·좌절
번져가고 있어 걱정

9/22일 노인의 날 오찬

고2때 공부 안해도
갈 대학 정해져 있어
능력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19살 정유라.
25만 유로(약 3억1천만원) 0%대 대출

민주노총

20대 쌍둥이

학자금 벌겠다고 공사장에서 일했는데 임금870만원 떼여
이럴려고 여름내 고생했나 자괴감 들어

10대 청소년

온갖 욕먹으며 눈치보고 일해도 최저임금도 못받아..
이럴려고 알바하나 자괴감 들어

민주노총

간호사

졸업해 간호사로 일하지만 학자금 갚느라
올해도 티셔츠 딱 한 장... 이럴려고 일하고있나 자괴감 들어

20대 대학생

시간당 4500원 최저임금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이럴려고 노동부가 있나 자괴감들어

민주노총

29세 졸업생

생활비 학자금 벌어가며 10년간 학교를 다녔는대..
남은건 사채 빚 천만원... 이럴려고 학교다녔나 자괴감 들어

50대 계산원

정규직과 똑같이 부려먹더니 협력업체라고 나 몰라라...
이럴려고 눈치보며 일했나 자괴감 들어

민주노총

상위 10%가 부의 66.4% 차지
국민들은 불평등이
한국사회 위협이라고 답한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 주식배당금 1,772억
도시락 먹을새 없이 14시간 일하는
에어컨설치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200만원

774억=37,000명

재벌이 최순실에게 상납한 774억은
시급 1만원 노동자 37,000명을 고용할수 있는 돈

민주노총

사회 양극화의 해법!

임금은 올리고!
최저임금 1만원
차별은 없애고!
비정규직 철폐

15만 금속노동자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권리, 함께 누려요. 자부심, 함께 느껴요.

노동조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열린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금속관련 산업, 기타 제조업에 일하는 노동자,
가입을 희망하는 노동자 모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철강, 조선, 전기전자, 기계금속, 수리서비스 사업장의 노동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개별가입 노동자까지
280여개 사업장 15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속노조의 문을 두드리세요.

전국금속노동조합	02-2670-9509, 02-2670-9555
서울지부	02-2636-2148~9
인천지부	032-524-7574
경기지부	031-251-7095
포항지부	054-278-1339
충남지부	041-549-4344
대전충북지부	043-236-5077
전북지부	063-243-2009
광주전남지부	062-525-5313
대구지부	053-252-5475~6
경주지부	054-748-3223
구미지부	054-464-0403
경남지부	055-267-1255
부산양산지부	051-637-7433
울산지부	052-265-4961

말레베어노동자들, 파독간호사들과 손을 맞잡다

필자의 말 1960년대 독일로 이주노동을 떠났던 간호사들이 지난 11월16일 독일기업 말레베어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정관지역지회 말레베어현장위원회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동부산상담소에서 진행한 간담회와 말레베어 노동자 집회 발언을 재구성했습니다.

파독간호사분들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정관지역지회 말레베어현장위원회 노동자들이 11월16일 부산 공장 앞에서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리 간호사들은 1960년대 독일로 갔습니다. 올해가 간호사 파독 50년이어서 서울시 초청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열기가 높은데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독일에 있는 한인들이 이 현장에 함께 있는 우리를 무척 부러워하고 있습니다"라며 한국에 온 소회를 밝혔다.

"파독 간호사들이 처음 독일 병원에서 일할 때 병원 안에 평의회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우리는 병원 노조에 가입해서 권리를 보호받았습니다. 민주노총이 결성되고 합법화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그동안 연대투쟁도 많아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68혁명을 경험했고 한국에서 벌어진 동일방직 똥물사건, YH사건에 연대했습니다. 우리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의식이 깨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우리들은 한국정부에 의해 입국금지 당했던 시절도 있습니다"라며 투쟁의 경험을 들려줬다.

말레베어현장위원회 노동자들이 화답했다. "말레베어는 독일 기업이고 세계 130여 개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말레베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의 욕설과 비인간적인 처사 등 모욕적인 처우를 받았습니다. 독일 사장 콜러와 독일 자본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상관없다는 듯이 방관하면서 회사를 비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노동자들은 2015년 5월26일 금속노조 말레베어현장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노조가 생기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들은 많이 줄었습니다"라고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노조는 올해 4월 말레베어에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말레베어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섭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임금인상, 호봉제 도입, 노조 사무실'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노조로서 아주 작은 요구입니다. 말레베어는 기다렸다는 듯 노조를 무시한 채 사측인사로 구성한 노사협의회와 임금인상안에 합의하고 노조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조 사무실 마련에 대해 '공간이 없다,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라며 말레베어의 탄압상황을 전했다. 말레베어 노동자들은 "상여금 600%를 400%로 삭감하고 삭감분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면서 약속했던 호봉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아까워하는 말레베어는 노조를 못살게 구는 데 엄청난 돈을 씁니다. 금속노조가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을 주축으로 2노조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분개했다.

말레베어 부산 공장 앞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쓴 현수막이 걸려있다.

노동자들은 "말레베어 현장위원회 조합원들은 9월부터 파업 등으로 수위를 높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11월7일부터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조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벅찬 상황입니다. 독일 본사에 호소했지만 한국 내 노사문제는 한국 안에서 풀라고 합니다. 독일에 아무리 선진노사문화가 있다 해도 한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고 봅니다. 기존 한국기업들의 행태를 따라하면서 독일에선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말레베어의 노조탄압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투쟁상황을 전달했다. 파독 간호사분들은 격려의 말을 이어갔다. "1986년, 1987년 독일기업 후레아패션 연대투쟁 당시의 상황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독일인, 독일사회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독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시에 해외로 나간 한국기업의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나온 독일기업의 행태처럼 타국으로 간 한국기업들이 저지르는 인권, 노동권 침해가 많으니까요. 독일로 돌아가면 독일 금속노조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김그루 〈이주민과 함께〉

화학물질 누출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일하고 사는 법

‘긴급 대피’ 법 규정 제정 시급…사업주에게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지도 작성 요구해야

❖ 유해물질 맵(전체공정)_SAMPLE

유해화학물질지도 작성 예시

화학물질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생활 속의 화학물질 문제가 있지만 사업장과 주변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가 있다. 구미의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로 인해 공장 안 노동자 네 명과 옆 공장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고 이웃 주민들의 농작물이 죽는 등 삶에 악영향을 주었다.

우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사업장이나 주변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장 안 사고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구미 불화수소 사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기존 법률 명칭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바꾸었고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도 만들었다. 이들 법률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방법을 규정했다. 화학누출 폭발 화재 발생 시 누출 지점에서 주변 피해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안 노동자를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유해위험업종 7개, 유해위험물질 51종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해당 사업장 노동자와 주변 노동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가

사업장 안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보자.

1. 우리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있다.
2. 나는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알고 있다.
3. 나는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방법, 응급조치 방법 등을 알고 있다.
4. 우리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비치하고 있다.
5. 우리 사업장은 화학물질, 분진이 발생하는 곳에 국소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해 놓았고 실제 가동하고 있다.
6. 우리 사업장은 화학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만약 이들 중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지도를 만들기를 권고하고 있다. 사업장 안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노동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유해화학물질지도를 사업주에게 요구해서 만들도록 하자. 작업장 주변에 게시하면 일상적으로 유해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일하는 공장과 주변 공장에서 독성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노동자들은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은 대피하는데 노동자들은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들이 대피를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법 규정으로 강제해야 한다. 내가 일하는 공장과 주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나면 ‘긴급 대피’하는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법 규정을 만들려면 최소한 우리 사업장 주변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주변 사업장 노동자와 교류다. 서로 만나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업장은 사고에 대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할 때 주변 노동자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주변 사업장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유해위험과 비상대응 관련법에 1년에 1회 이상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고지 시스템(http://icis.me.go.kr/rmp_notice/Main.do)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00공단 안전한 화학물질 지킴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면 어떨까.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비정규직 노동자가 뿔났다

재벌 뇌물 대가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박근혜 노동정책 폐기 촉구

12월3일 광화문광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 시국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청와대 포위 행진에 나서고 있다.

주말마다 2백만 개가 넘는 촛불이 전국을 밝히고 있다. 매주 토요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농단의 책임자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목소리가 한데 모이는 광화문. 지난 12월3일 일찌감치 전국 곳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촛불집회'에 앞서 모여 자유발언으로 '비정규직노동자 시국대회'를 시작했다. 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노조를 만들어 가능했던 투쟁 승리, 정부의 노동정책 폐기를 이야기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학생들의 밥을 짓고, 전산업무를 보고, 사서 등으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전국 40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말마다 해고 위기에 처하게 만듭니다. 비정규직은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해고통지서'를 선물로 받아야 합니까."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

"서울시 25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우울증 예방 상담, 자살, 알코올 중독,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며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 모두가 100% 비정규직입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고용되어 진짜 사장이 누군지 몰랐다가 올해 2월 노조를 만들고 싸우면서 진짜 사장을 찾았습니다. 10개월, 1년 쪼개기 계약을 하다 진짜 사장인 서울시장, 자치구와 고용안정협약을 맺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의 응집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

"톨게이트에서 요금 수납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톨게이트 전면 무인화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입니다. 무능한 정권이 내놓은 정책에 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노동현장, 해고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TV, 인터넷 설치 노동자

"저는 10년째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근속이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상여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년 단위 계약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현재 TV, 인터넷 설치하는 기사들의 82%가 단기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원청이 위험한 일을 외주업체에 하청을 주는 현장의 악습을 없애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차별 대우를 없애기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없애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고용안정 보장하라", "간접고용 철폐하라." 이날 광화문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재벌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박근혜,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800억원. 촛불을 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재벌이 바친 뇌물의 대가로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노동정책을 만들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12월3일 일찌감치 전국 곳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촛불집회'에 앞서 모여 자유발언으로 '비정규직노동자 시국대회'를 시작했다. 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노조를 만들어 가능했던 투쟁 승리, 정부의 노동정책 폐기를 이야기했다.